



## 이혼(離婚)이 아닌 Re婚을 사는 세계

● 송길원 목사의 '축생태학자, 행복발전소 하이피밀리 대표'

가정사역자로 일하는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다.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느냐고?' 배우자를 앞에 두고 뭐라고 답할까? 질문이 뻔하니 뻔하니 답도 뻔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이터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답한다. '응, 엄마는 맛있는 거 사 줘서 좋고, 아빠는 나하고 놀아줘서 좋아.' 요새 아이들은 영리하다. 어른들이 답한다.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살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쳤어? 너하고 살게.' 그래서 어른들은 시약하다고 한다. 내 친구는 지금의 배우자를 다시 선택한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유를 물었다. '다른 여자하고 또 적응해 살 것 생각하니 끔찍해서라고 했다. 내 친구는 차라리 정직하다. 그런데도 뻔한 질문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껏 상상한다. 로또 복권을 사 들고 '당첨이 된다면' 하고 온갖 상상에 빠질 때처럼 황홀해서다. 그런데 그 가정법이 일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머물던 시대는 먹고사는 일에 바빴다. 생계에 쫓

기다 허리를 펴면 바로 눈앞에 죽음이 와 있었다. 내일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 제발이니 미래의 꿈이니 따위의 사치스런 생각이냐 했을까? 티티구나 부부관계는 부의 목련이 그렇듯 꺾듯 꺾듯 피어났다거나 겹겹처럼 새까맣게 썩어갔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90세에 육박한 이즈음에는 달라졌다. 평균 은퇴 나이인 57세에 3년을 보너스로 얹어 60세부터 카운트를 한다 해도 90세까지 한 세대를 더 살아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물으면 30년 세월이 눈앞에 와 있는 셈이다. 뭘 먹고 살 거냐는 염려에 앞서 또다시 한 여자와 남자로 살아가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주가 될게 틀림없다. 오죽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성경은 이른다.

"각각 기록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살전 4:4).

부부생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록과 존귀'이다. 우리의 부부생활에도 기록이 있거나 한 길 일까? 티티구나 서로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른다. 그것이 신사도다.

처칠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처칠은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답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진. 제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결혼이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이 강제이긴 선택이긴 이전의 방식으로는 결코 'NO'다. 'ON'으로 뒤집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성질 부릴 만큼 부러놓고 뒤끝은 없다고. 그 래 저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할 건데. 한번은 몰라도 두 번은 안 돼' 어디 아내들뿐이라. '뻔 디스러운 성질에다 미련 곰팡이 같은 당신 비위 맞추고 또 살라고.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나?' 세월이 더한다고 부부 사이가 깊어질 리 없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행복해질 리도 없다.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빴던 세월, 이제는 소진된 사랑을 보충해야 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급유 없이 장거리를 떠날 수 없지 않은가?

축구의 '히프타임'이 있다면 연주회에는 '인터미션(intermission)'이 있다. 연주회 중간의 15분에 서 20분가량의 휴식시간을 이른다. 연주자들은 한숨 돌리며 마음을 다잡아 다음 연주를 준비하게 된다. 청중들은 커피 등 음료를 마시며 연주회 평을 나누고 다음 연주를 기다린다. 전통적으로 1부에서는 서곡 비슷한 짧은 관현악곡 하나쯤, 2부에서는 교향곡이나 비중 있는 관현악곡 하나로 구성된다.

부부를 일러 '실과 바늘의 두 악장'이라 한다. 1막이 brillante(브릴란테-화려하게)로 연주되었다면 2막은 amabile(아마빌레-사랑스럽게)로, 1막이 confuoco(콘푸오코-정열적으로)로 구성되었다면 2막은 grazioso(그라치오소-우아하게)로 거기다 dolce(돌체-부드럽게 달콤하게)가 가미된다면 부부 협주곡은 그야말로 환상일 게 틀림없다. 살림살이의 첫 악장이 끝났다면 2악장은 보람 실이여야 한다는 뜻이다.

길고 긴 연주를 인터미션 없이 계속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또 피곤할까? 인터미션이란 intermission이 합쳐진 말로 서로의 결혼생활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돌아보는 중간 마디다.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느슨해진 악기를 조이고 연주할 곡을 훑어보는 시간이다. 다음 연주를 위해 몸거품을 추스르고 무장할 시간이다.

1악장이 끝난 다음, 2악장의 연주가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런 지침을 가져보면 어떨까?

### 1.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누리고 살리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회'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기회를 주자. 기왕 다시 찾아온 기회라면 역진타를 시원하게 날려보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 과거의 정함을 거울삼아 흠린을 날리자.

### 2. '夫婦'가 아닌 '부부'로 살자.

한글의 '부부'는 한자어의 夫妻와 달리 획도 모양도 똑같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있어 동등하다. 진후려우 고저장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동등으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 보자. 거기 진정한 한 하나 됨이 있다.

### 3. 실림살이에서 보람살이로 기어를 변경하자.

먹고 사는 생계에 바빴다면 이제는 보람된 일을 찾아 나설 때다. 자서전도 써 보고 꿈의 여행이라 불리는 크루즈도 떠나 보고 춤도 배워 파티에 나서보면 어떤가? 해 볼 일은 수도 없이 많다. 서로에게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아보라.

### 4. 등정(登頂)주의에서 등로(登路)주의로 바꾸자.

등정주의는 '높은 곳에 관심이 있다. 등로주의는 높은 곳보다 어떤 길이나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메리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기를 썼다면 뉴리지(new+marriage)는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자. 그리고 훗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 나온 길이로 재 단라고.

### 5. 머리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가슴으로 살자.

머리로 판단하고 비판하던 삶에서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보자.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감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자주 손뼉 쳐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자.

### 6.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자.

이력서(履歷書)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감동하게 할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자. 감동적인 서정시를 남기자. 두고두고 읽힐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자. '당신 생각을 써 두고 잠들었습니다'(함민복)는 시(詩)가 나의 시가 되게 하자.

### 7. 기성복이 아닌 맞춤형 행복을 찾아내자.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는 내 스타일로 개성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한다. '꽃이 눈치 보고 피나? 새가 손뼉 쳐야 노래하나?'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그런 삶을 찾아야 한다.

### 8. 과거에서 벗어나 치유의 여정을 떠나자.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픔 없는 사랑이 어디 있나? 이제 '무(無)서운'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 과거는 버리고 내일의 염려는 짐자. 어제의 비로 오늘 그들의 바지를 적실 필요 없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 우산을 펴들 필요 없이 않은가?

### 9. 죽음비로 사는 준비를 하자.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어 버리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지른다. 어떤 사람은 75세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자. 미리 유언장도 쓰고 장례식 설계도 미리미리 해 두자.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다.

### 10. 기업가(企業家)에서 기업가(起業家)로 거듭나자.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수익과 생산에 목적을 두었다면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는 가치의 창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제는 우리 가문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나비섬(나눔·비움·섬김)에 답이 있다.



굳이 심계까지 아니라도 좋다. 이런 다짐 하나면 주어진 결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자신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사랑의 증표로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해 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약속을 지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치지 못하 약속을 위해.'



송기원 고신대, 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성심상리 전공),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졸업(목회학 박사), EBS 송결원 스페셜, SBS 명사특강, KBS 시사토론, MBC 패널 등 방송을 통해 행복을 전파시키고, 대표로 있는 80퍼센터는 2004년 5월 15일 7장의 날에 기관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가정사역사태>, <행복의 씨앗을 배틀합니다>, <7장예배 날마다행복>, <위트클레이들>, <행복을 낚는 말 한마디> 등이 있다.